

# 주간기도정보

2026. 4. 21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해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을 위한 기도 자료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나이다”

#### “낙태약 부작용 은폐 중단하라” 시민단체, 낙태약 도입 반대

17일 식약처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생명운동연합, (사)프로라이프 등 전국에서 모인 종교계 및 시민단체 회원들은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의 약물 낙태 허용 시도를 “반인륜적 행정”이라 규정하고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국회가 후속 입법을 완료하지 않은 ‘입법 공백’ 상태”라며 “현재 낙태의 허용 범위와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 자체가 부재한 상황에서 식약처가 독자적으로 낙태약을 허가하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초법적 행위다.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법적 근거 없이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가하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초법적 행위다.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법적 근거 없이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낙태 허용의 주요 명분으로 내세우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학업, 경력 단절 등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생명을 살해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느냐”며 “사회·경제적 사유는 국가가 복지 정책을 통해 임신부를 도와야 할 ‘지원의 근거’가 돼야지, 낙태의 ‘면죄부’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합법화하는 것은 결국 생명에 가격표를 매겨 가난하고 소외된 생명부터 제거하겠다는 생명 경시의 극치이며, 국가의 양육 지원 의무를 방기하는 비겁한 행정 편의주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건강권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됐다. 성명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미국 내 낙태약 부작용 사례는 10.93%에 달하며, 국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도 약물 낙태 시도자의 71.4%가 불완전 낙태로 인해 결국 수술을 병행해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들은 “정부와 식약처는 낙태약이 마치 ‘타이레놀보다 안전한’ 것처럼 선전하며 여성들을 기만하고 있다”며 “과다출혈, 패혈증, 자궁 파열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숨긴 채 도입을 서두르는 이면에는 제약 자본과의 ‘검은 카르텔’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의 건강을 위협한 도박판으로 내모는 ‘가스라이팅’이라는 주장이다.

나아가 최근 사회적 공분을 샀던 ‘36주 임신부 낙태 영상’ 사건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의 윤리적 붕괴를 경고하고 “태아는 산모와 다른 DNA, 다른 심장박동을 가진 엄연한 독립적 생명체”라며 “반려견보다 못하게 다뤄지는 태아의 비명을 외면한다면 이 땅의 어떤 인권 주장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대표단은 ▲낙태 약물 허가 즉각 중단 ▲낙태약 부작용 정보의 투명한 공개 ▲사회경제적 사유 낙태 허용안 철회 ▲여성과 태아를 모두 보호하는 법안 마련 등이 담긴 공식 요구문을 식약처 관계자에게 직접 전달했다(출처: 기독교일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 이다(시편 71:6)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 낸 너를 도와 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론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이사야 44:2-3)

하나님, 주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이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대적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 생명의 존엄을 공격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있는 이 땅의 위기를 굽어살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입법자들과 행정가들의 어두운 눈을 열어 주셔서 생명의 주권과 시작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또한 한국교회는 이 일에 깨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태중의 생명이 보호를 받고, 성령의 은혜와 복음의 복이 다음세대로 흘러가도록 항상 기도하게 하옵소서.

## 2. 북한을 위한 기도

###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 “비핵화 없다”... 북한,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공식화

중동·유럽 분쟁 활용 압박, 러시아·이란과 ‘운명공동체’ 추진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하고 외교 다극화 전략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외무성 간부들에게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최근 당대회 방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시문을 부서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시문은 비핵화 불가 원칙을 고수하며 미국을 향한 ‘강 대 강’ 정면돌파 전략을 추구함과 동시에 러시아와 중국을 넘어 반서방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외교 다극화를 새로운 생존 전략으로 내세웠다는 점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지시문에는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제적으로 굳히고, ‘비핵화’라는 말은 아예 쓰지 않으며, 앞으로 협상은 핵을 줄이는 문제부터 시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서방 국가들이 우리를 핵보유국으로 대우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접촉도 불허한다는 원칙을 고수할 것을 요구했다.

소식통은 “당은 미국에 대한 기대감을 완전히 없애고 ‘적대시 정책 철회’가 선행되지 않는 한 대화는 없으며, 미국의 외교적 역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중동 및 유럽의 분쟁 지역을 활용한 압박 전술을 활용할 것이라는 전략을 지시문에 밝혔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맹 심화 및 혈맹 수준의 관계 격상을 위한 군사·경제적 밀착 강화가 언급됐다. 러시아와는 단순한 협력을 넘어선 ‘운명공동체’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재편되는 신냉전 질서를 적극 활용해 기름, 첨단 기술, 식량 수급의 안정적 통로를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는 전언이다.

또 이란과의 군사적 연대를 외교의 핵심축으로 설정하라는 내용도 이번 지시문에 담겼다. 이란과 핵미사일 기술 공유를 통해 미국의 안보 부담을 가중시키고, 제3국과의 다국적 무기 거래망을 확충해 대북 제재망을 무력화하는 실질적 통로를 개척하라는 지시다.

소식통은 “당은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에 균열을 내기 위해 외교 지평을 넓히며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반서방 국가들을 대상으로 ‘주권 수호 국가’로서의 공화국 위상을 선전하고 다각적인 외교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당은 미국에 매달리기보다는 우방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다국적 협력 체계에 능동적으로 편입되는 것이 체제 안정과 경제적 실익에 더 유리하다는 최종 판단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조미(북미) 관계 개선에 목매지 않고 독자적인 핵 강국 노선을 견졌다는 결연한 선포”라고 말했다(출처: 데일리NK 종합).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이사야 31:1,6)**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돌렸더라(열왕기하 6:16-17)**

하나님, 핵을 이용해 군사력을 높이고 반서방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함으로 일당독재정권을 유지하려는 북한의 미련함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도움을 구하러 이방 나라를 찾으며 병거와 마병의 많음에 기대려는 그들의 완악한 심령을 꾸짖으사 거룩하신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는 교만함을 회개케 하옵소서. 그 땅의 교회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사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북한 영혼들에게 들려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 북한 영혼들의 눈을 여사 그들을 불말과 불병거로 둘러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헛된 것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을 힘써 의지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소서.

###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 “변화하는 세상, 변함없는 복음”... 다음세대 교육 포럼 개막

한국 어와나, 교척교회서 2026 CDFK 수도권 포럼 개최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다음세대를 신앙 위에 세우기 위한 기독교 교육 포럼이 서울에서 막을 올렸다. 한국 어와나(Awana)는 11일 서울 교척교회에서 ‘2026 CDFK(Child Discipleship Forum Korea)’ 수도권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기존 어와나 교사 중심 컨퍼런스를 한국교회 전체를 위한 포럼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어린이 제자도’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수도권 어와나 등록 교회 90여 곳에서 약 700명이 참석했으며, 비등록 교회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약 1,500명의 사명자들이 함께하며 다음세대 신앙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CDFK는 급변하는 교육 환경과 다음세대의 가치관 변화 속에서 ‘복음의 본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췄다. 주최 측은 “아이들의 환경은 빠르게 바뀌고 있지만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며 “그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가 이번 포럼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강사로 나선 이종국 목사(한국 어와나 대표)는 ‘변화하는 세상, 변함없는 복음’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하며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와나를 실천하는 교회들이 한국교회를 깨우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며, 다음세대 교육의 새로운 모델로서 책임을 당부했다.

이어 백은실 사모(말씀심는교회)는 ‘네 마음판에 새기라’를 주제로 부모와 교사가 먼저 말씀을 삶 속에 새기고 이를 자녀에게 전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가정 중심의 신앙 교육 중요성을 제시했다.

오후 세션에서는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교육 전략이 소개됐다. 황인권 대표(인권앰파트너스)는 ‘멤버십 교회’ 흐름을 분석하며 청년세대와의 새로운 연결 방식을 제안했고, 유승현 목사(유목민 이야기)는 잘파세대를 위한 교회학교 ‘리셋’ 전략을 제시했다. 이춘성 목사(기독교 윤리학 박사)는 AI 시대 교사의 역할을 ‘지식 전달자’에서 ‘질문과 관계를 설계하는 존재’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환영사를 전한 한국 어와나 김승정 목사는 “이번 포럼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갖춘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돕기 위한 자리”라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CDFK 관계자는 “전국에서 모인 사명자들의 참여는 한국교회 다음세대에 대한 희망을 보여준다”며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함없는 복음으로 다음세대를 세워가는 여정에 더 많은 교회가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출처: 기독교일보 종합).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골로새서 1:28)**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베드로전서 1:24-25)**

하나님, 다음세대를 신앙 위에 세우기 위해 교회와 사명자들이 함께 연합하여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모여 고백하였던 것처럼 이 땅의 어린 자녀들에게 시대에 따른 다른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는 완전한 십자가 복음이면 충분함을 고백합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교회와 부모세대를 축복하여 주사 참 진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다음세대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통로로 서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아이들이 급변하는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가는 세대가 아니라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위에 굳게 선 진리의 군사들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 다음세대가 주의 영광과 선교완성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게 하소서.

다음은 ‘열방의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실1 -

기도실2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